

인천AG 파트너 삼성, 스포츠마케팅·후원 모두 금메달



인천AG, 삼성이 함께 된다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은 기업 경영뿐 아니라 스포츠 경영과 마케팅에서도 세계 최고를 지향한다.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4대 프로스포츠(야구·축구·농구·배구) 구단을 모두 운영 중인 삼성은 비인기 아마추어 종목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한국 스포츠 발전에 앞장서왔다. 특히 공격적 투자로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며 세계 일류 기업들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 삼성은 2014인천아시안게임의 '프레스티지 파트너'로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힘을 보태고 있다. '45억 아시아인의 축제'를 앞두고 인천아시안게임 최상위 후원업체인 삼성의 활동상과 더불어 한국 스포츠를 이끌어온 삼성의 힘을 조명한다. (편집자 주)

중국 등 5개국 26명 국가대표선수 AG홍보 지원 인천AG 최우수 선수에게 트로피와 상금도 수여 참가 선수·취재진에게 최신 제품 체험·편의 제공 1986년 서울대회 스폰서 이후 최상급 파트너로

동·하계올림픽, 축구월드컵 등 막대한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는 다국적 기업들의 마케팅 전쟁터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이 전쟁에 뛰어 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수의 준비된 기업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 삼성은 그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리더'다. 올 2월 2014소치동계올림픽 직후 글로벌 마케팅 전문지 '마케팅 위크'는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 전달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소치동계올림픽 마케팅 분야에서 진정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평가했다.

●올림픽&아시안게임 파트너 삼성

삼성전자는 8월 중국 난징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2020년까지 올림픽 공식 후원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였던 기존 계약을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2020도쿄올림픽까지 연장했다. 후원 범위에 기존 스마트폰에서 새롭게 태블릿, 노트북, 데스크톱, 프린터 등의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했다.

1988서울올림픽 로컬 스폰서로 올림픽과 인연을 맺은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강화를 위해 1997년 IOC와 TOP(The Olympic Partner) 계약을 처음 체결했다. 이후 1998나가노동계올림픽부터 2014소치동계올림픽까지 9회 연속 무선통신 분야 공식 후원사로 활동해왔다. IOC의 TOP로 활동하는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삼성전자는 이번 연장 계약에 따라 20년 넘게 올림픽 파트너를 맡게 됐다.

올림픽 파트너인 삼성전자는 인천아시안게임도 함께 한다. 삼성전자는 1986년 서울대회 때 처음 아시안게임 로컬 스폰서로 참여했다. 1998년 방콕대회부터 2002년 부산대회, 2006년 도하대회, 2010년 광저우대회를 거쳐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최상위 등급인 프레스티지 파트너로 활약한다.



말레이시아 응원단이 8월 6일 말레이시아 팔라룸푸르 만다린 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2014인천아시안게임 캠페인 론칭 행사에서 '팀 삼성'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다. 사진제공 | 삼성전자

●인천아시안게임, 삼성이 된다!

아직 개막하지 않았지만 인천아시안게임을 향한 삼성전자의 힘찬 발걸음은 이미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8월 6일 말레이시아 팔라룸푸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인천아시안게임 캠페인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번 캠페인의 테마는 '우리의 게임, 우리의 자부심(Our Games, Our Pride)'이다. 각국 선수단을 아시아인 모두가 함께 응원하며 대회를 즐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8월 23일 중국 광저우 헨허스포츠펠드와 태국 방콕 센트럴월드에서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프라이드 릴레이(Pride Relay)' 행사를 열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아시안게임 동안에는 '팀 삼성'

(Team Samsung)', '삼성 소셜 캐스터(Samsung Social Caster)', '삼성 MVP 어워드'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한편 스마트 기기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삼성 홍보관도 운영한다. '팀 삼성'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요르단 등 5개국에서 선정된 총 26명의 선수들이 인천아시안게임을 홍보하고 삼성전자의 마케팅 활동에도 직접 참가하는 프로그램이다. 배드민턴 세계랭킹 1위 리충웨이와 2012년 런던올림픽 다이빙 동메달리스트 팸필렐라(이상 말레이시아)가 이미 공개된 '팀 삼성'의 멤버다. 삼성전자는 또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전문 블로거를 '삼성 소셜 캐스터'로 선발해 '팀 삼성' 선수들의 도전 스토리와 메달 소식 등 대회

현장의 생생한 감동을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를 통해 소셜 미디어 채널로 공유토록 할 예정이다. '삼성 MVP 어워드'도 시상한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삼성전자가 참여하는 '삼성 MVP 운영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정할 뒤 대회 취재기자단의 투표로 인천아시안게임 최우수선수를 뽑아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한다. 삼성전자는 또 인천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광장에 삼성의 혁신기술과 신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는 홍보관을 설치해 각국 선수단과 취재진에게 최신 제품 체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한다.

김도훈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1986년 서울AG부터 후원...이봉주·김인섭 金결실

■역대 AG를 빛낸 삼성맨들

기초 종목에서만 7개 대회 총 38개 금 수확 2002년 부산AG 한국 96개 금 중 13개 획득 레슬링 김인섭·문의제 1998·2002년 2연패

삼성스포츠단은 아시안게임에서도 밝게 빛났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면하는 기초 종목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꾸준히 투자해 일군 성과가 더욱 값졌다.

1986년 서울대회부터 2010년 광저우대회까지 삼성스포츠단 소속 선수들은 역대 아시안게임 기초 종목에서만 무려 38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그중에서도 레슬링은 가장 두각을 드러냈다. 무려 14개의 금메달이 쏟아졌고, 1986년 서울대회부터 2006년 도하대회까지는 6개 대회 연속 금메달 사냥에 성공했다. 특히 2002년 부산대회에선 그레코로만형 2개(김인섭·강경일), 자유형 2개(백진국·문의제) 등 총 4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레슬링 강국의 이미지를 굳히는 데 앞장섰다.

태권도 역시 삼성의 힘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종목이다. 1998년 방콕대회를 시작으로 2010년 광저우대회까지 8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탁구와 배드민턴에서도 강세를 이어왔다. 각각 6개씩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이밖에 테니스에서 3개, 육상에서 1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2002년 부산대회에선 삼성스포츠단의 활약이 가장 빛났다. 한국이 얻은 96개의 금메달 중 13개의 금메달을 삼성스포츠단이 책임져 종합 2위 달성



이봉주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며 한국의 종합 2위 달성에 앞장섰다. 한국마라톤의 영웅인 그도 '삼성맨'이었다. 스포츠동아DB

에 큰 힘을 실었다. 특히 '마라톤 영웅' 이봉주는 한국육상의 저력을 과시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레슬링 김인섭(그레코로만형)과 문의제(자유형)는 1998년과 2002년 대회, 백진국(자유형)은 2002년과 2006년 대회에서 2연패 위업을 달성하기도 했다.

탁구 남자단체의 박지현도 1986년 서울대회와 1990년 베이징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아시안게임을 넘어 올림픽에서도 삼성스포츠단의 활약은 계속됐다. 1988년 서울대회를 시작으로 올림픽에서 모두 16개의 금메달과 13개의 은메달, 11개의 동메달을 따내 총 40개의 메달을 대한민국에 안겼다. 이는 같은 기간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의 전체 메달 206개 중 19.4%에 해당하는 성과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인천 AG를 빛낸 삼성맨들

삼성스포츠단 선수들 11개 종목 29명 출전 탁구 주세혁, 태권도 신영래 등 연일 구슬땀

한국스포츠가 각종 국제대회에서 호성적을 거두는 데 삼성스포츠단의 역할은 컸다. 삼성스포츠단은 e스포츠를 제외한 12개 종목의 선수단을 운영하며 기량이 좋은 대표선수들을 육성해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에는 11개 종목 29명의 삼성스포츠단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참가한다.

야구대표팀에선 삼성 라이온즈 안지민, 차우찬, 임창용, 김상수 등 4명이 포함됐다.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류중일 감독도 삼성 라이온즈 사령탑이다. 안지민, 차우찬, 임창용은 불펜을 책임진다. 김상수는 든든한 백업 멤버로 대표팀의 내야를 뒷받침해 한국의 금메달 사냥을 돕는다.

남자축구대표팀에는 수원삼성 골키퍼 노동건이 합류했다. 각각 청소년대표를 지내며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선수로, 와일드카드 김승규(울산)의 합류로 주전에서 밀렸지만 그에 못지않은 기량을 갖춘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축구는 1986년 서울대회 이후 28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린다.

남자배구 삼성화재 박철우는 8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을 노리는 대표팀의 에이스로 활약한다. 여자농구 삼성생명 이미선은 대표팀 만만치 않아서 후배들을 이끌어 한국의 아시아 정상 탈환에 선봉장 역할을 맡는다.

삼성스포츠단의 아마추어 종목 선수들 중에선 금메달 후보들이 많다. 배드민턴대표팀 이용대(삼성정기)는 유연성(국군체육부대)과 호흡을 이뤄 남자복식에서 금빛 스페셜을 다짐하고 있다. 최근 참가한 국제대회에서 라이벌 인도네시아 복식조를 연파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어 기대된다. 남자레슬링 그레코로만형 75kg급의 김현우(삼성생명)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세계선수권을 제패한 경험이 있는 류한수(삼성생명·그레코로만형 66kg급)도 김현우와 함께 시상대 꼭대기를 점령할 선수로 주목받고 있다. 주세혁(삼성생명)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남자탁구의 부활을 이끌 주역이다.

이밖에 남자탁구 정상은(삼성생명), 태권도 신영래, 조철호(이상 삼성에스원), 육상 백승호, 현서용, 김민, 김성은(이상 삼성전자), 럭비 윤태일(삼성중공업), 테니스 정현(삼성중공업) 등의 삼성스포츠단 소속 선수들이 메달 획득을 위해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최용성 기자 ghyong@donga.com 트위터 @gtyong11

삼성트레이닝센터가 스포츠엘리트 만든다

재활센터 등 최신식 시설 갖춰 선수관리

경기도 용인 죽전동에 위치한 삼성트레이닝센터(STC)는 '삼성스포츠단의 요람'으로 불린다. 삼성은 스포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07년 STC를 설립했다. STC에선 현재 남녀프로농구, 남자프로배구, 탁구, 태권도, 레슬링 등 6개 팀이 상주해 훈련하고 있다.

각 팀은 종목별로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부상선수들은 STC 내부에 마련된 재활센터에서 별도의 트레이닝을 받는다. 과거에는 부상선수의 수중치료를 위해 체육센터 수영장을 임대했으나, 이동에 불편이 뒤따랐다. 그러나 최신식 시설을 갖춘 STC 건립 이후 불편은 모두 해소됐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배드민턴 등 STC에 상주하지 않는 종목의 선수들도 부상 치료를 위해 STC를 찾는다. 선수뿐

아니라 현장에서 신경 쓰기도 바쁜 각 구단 트레이너들도 STC 설립으로 큰 도움을 얻고 있다. STC에서 부상선수를 관리한 덕분에 각 구단 트레이너들은 소속 선수 관리에 좀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STC의 건립과 운영을 통해 삼성화재 프로배구단(블루팡스)은 7연패라는 한국프로스포츠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웠다. 또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배영수, 안지민 등은 수술 후 STC의 꾸준한 관리 덕분에 빠르게 본래의 기량을 되찾았다. 일본프로야구 한신 오릭스도 삼성 시절 STC에서 재활하며 성공적으로 복귀한 사례다.

이처럼 STC를 통해 삼성스포츠단의 선수관리, 재활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물론 해외 기업들까지 속속 STC를 견학하고 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이용대

●삼성스포츠단 소속 역대 아시안게임 기초 종목 금메달리스트

대회	금메달	종목(선수)
1986년 서울	3개	레슬링 그레코(김영민), 탁구 남자단체(김일·박지현), 탁구 여자복식(양영자)
1990년 베이징	4개	레슬링 그레코(안현봉·김종신), 레슬링 자유형(박장순), 탁구 남자단체(문규민·박지현)
1994년 히로시마	3개	레슬링 그레코(민경갑), 레슬링 자유형(김영일), 탁구 남자복식(이철수)
1998년 방콕	8개	레슬링 그레코(김인섭), 레슬링 자유형(문의제), 테니스 남자단체(윤용일), 테니스 남자단체(윤용일·이형택), 배드민턴 혼합복식(김동문), 태권도 남자(김제경·김병욱), 태권도 여자(정명숙)
2002년 부산	13개	레슬링 그레코(강경일·김인섭), 레슬링 자유형(문의제·백진국), 탁구 남자복식(유승민·이철수), 탁구 여자복식(이은실), 배드민턴 남자단체(김동문·박태성·유용성·이동수·임방민·하태권), 배드민턴 남자복식(유용성·이동수), 배드민턴 혼합복식(김동문), 배드민턴 여자복식(이경원), 태권도 남자(김정훈·박희철), 육상 남자마라톤(이봉주)
2006년 도하	4개	레슬링 그레코(김정섭), 레슬링 자유형(백진국), 테니스 남자단체(이형택), 태권도 여자(김보혜)
2010년 광저우	3개	배드민턴 혼합복식(이효정), 태권도 남자(허준영), 태권도 여자(이성혜)